

### 국내 최초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도입



금호타이어는 2001년 6월 국내 최초로 타이어 특화 유통 브랜드 '타이어프로'를 만들었다.

타이어 판매만 가능한 일반 대리점과는 달리 타이어프로에서는 타이어 추천과 교체, 점검과 정비 등의 서비스가 모두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타이어프로에는 고도로 숙련된 타이어 전문가들이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들을 양성하기 위해 점주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연수와 단계별로 세분화된 기술 전문가 과정, 판매 교육, 경영 실무 교육 등을 실시했다.

타이어프로는 2013년 타이어 전문가 양성을 위해 업계 최초로 대전에 트레이닝 센터를 열었다. 이곳에서 직원들



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프로 고객에게 실용적인 혜택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란 구매 후 타이어

바닥면이 마모 한계선(1.6mm) 수준까지 닳았을 때 실제 주행거리와 보증거리(6만km) 간의 차이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겨울용 타이어보관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이진혁 조선비즈 기자

### 두꺼운 라텍스 매트리스, 탄성·복원력 등 뛰어난



'라클라우드'가 '2015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부문에 선정됐다.

'라클라우드'는 종합 헬스가전 렌탈 기업 바디프랜드가 이탈리아 천연라텍스 생산업체 'ECO TQL'의 전문 지식과 기술로 만든 라텍스 매트리스 브랜드다.

라클라우드는 유럽 인증마크를 받은 100% 이탈리아산(産) 천연 라텍스를 사용하는데, 라텍스 생산에서부터 봉제와 포장에 이르는 모든 공정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뤄진다.

라클라우드 제품에 들어가는 매트리스는 두께가 16~20cm 정도다. 라텍스를 얇게 잘라 스프링 위아래로 넣은 형



태의 매트리스와는 구조가 다르다.

라클라우드는 "국내에서 가장 두꺼운 수준의 라텍스 매트리스"라며 "두께가 두꺼우면 탄성과 복원력, 지지력 등이 좋아진다"고 말했다.

라클라우드는 편안한 수면을 위해 라텍스 내부를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

했다. '7존 시스템'은 신체 굴곡에 따라 전신을 안정감 있게 받쳐준다.

계단식으로 뚫려 있는 공기구멍 '3쿠션 에어핀홀'은 일반 침대의 스프링 역할을 한다.

유진우 조선비즈 기자

### '항생제 제로' 지리산 한우, 철저한 안전관리 인증



NH순한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인 전국 최초로 광역 한우 브랜드인 '지리산 순한한우'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특산물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지리산 순한한우는 지리산과 한려수도에 인접한 고흥, 곡성, 구례 등 7개 전남 축협이 2003년 출범한 브랜드다. 현재 500여 축산농가가 지리산 순한한우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지리산 순한한우가 특산물 부문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이 있다. 지리산 순한한우는 생산과정에서 항생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유통 전 과정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콜드체인시스템을 적용해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지리산 순한한우는 출범 직후부터 굵직한 상을 휩쓸기도 했다. 2004년에는 우수축산물 대전 최우수상을 받았고, 2006년부터는 3년 연속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았다. 2009년에는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받았다.

유통경로 확대에 노력을 기울인 것도 지리산 순한한우가 주목받는 이유다. NH순한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리산 순한한우 전문음식점 6곳과 온라인 쇼핑몰을 개장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경로를 확대했다. 김성민 조선비즈 기자

### '신가치투자'로 유명한 인터넷 증권방송



세계로TV는 인터넷 증권방송으로 주로 투자자문과 증권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식 투자자에게 세계 경제의 흐름과 추천종목, 주식시장 동향 등을 알려준다.

이 회사의 '신가치투자'는 투자자 사이에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신가치투자란 주식차트를 분석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매수해, 배당과 시세차익을 거두는 투자 방법을 말한다.

세계로TV 관계자는 "각각의 종목에 대한 분석과 배당,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 등을 취합해 투자한다"고 말했다.



세계로TV는 부의 창출과 나눔을 경영철학으로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나눔장학회를 운영하며 기부 문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세계로TV의 무료강연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진행된다.

이 회사 김원기 대표가 직접 강연한다. 김대표는 주식투자 경력이 30년으로 주식과 관련한 책을 다수 내기도 했다. 매일 마지막 주일요일 오후 9시 세계로TV 홈페이지(www.segerotv.com)에서 도 김대표의 특강을 들을 수 있다. 이진혁 조선비즈 기자

### 복잡한 유통단계 축소... 산지 직거래 상품 제공



농협a마켓은 '2015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부문에 2년 연속 선정됐다. 농협a마켓은 농협하나로유통이 운영하는 농식품 전문 쇼핑몰이다.

농협하나로유통 관계자는 "쇼핑몰은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산지 직거래 상품을 제공하고 농가의 판로 확대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농협a마켓은 농협 쌀, 제철 과일, 축산물, 농협 김치 등 우리 농축산물과 가공 식품을 판매한다.

e하나로마트 서비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신선식품, 냉장육, 과일, 생필품 등을 주문 당일 배송하는 '장보기 대행 프로그램'이다.



농협a마켓은 하나로마트 10개 점의 농산물 판매가격을 매일 조사해 '농산물 가격정보'를 알리고 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내년 7월쯤 농협a마켓을 개선·발전시켜 오픈채널 등 다른 형태의 차세대 온라인 쇼핑몰을 선보일 방침이다.

김현근 농협하나로유통 대표이사는 "농협은 복잡한 유통단계를 축소한 농협a마켓으로 산지 직거래를 추구한다"며 "생산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병우 조선비즈 기자

### 베개에 물리치료기법 적용해 수면 불편 해소



호텔용품공급업체인 티앤아이는 물리치료기법을 베개에 적용해 수면을 도와주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티앤아이의 베개 브랜드 '가누다'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발생하는 수면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누다는 물리치료기법인 두개골요법(CST)을 적용한 기능성 베개 브랜드다.

두개골요법은 두개골과 영치뼈를 바로잡아 척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인데, 수면 시 가누다 베개를 사용하면 이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브랜드 '가누다'는 10여년 전부터 '오리지널 가누다'라는 제품으로 병원, 한



의원, 물리치료센터 등에서 환자를 도와 주는 도구로 사용돼 온 것이 모태다.

티앤아이 관계자는 "가누다를 체험한 환자들이 소문을 내며 집에서도 수면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 사항을 반영해 기능성 베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유영호 티앤아이 대표는 "가누다는 토종 기업이 기능성 베개 시장에 진출하는 물꼬를 튼 제품"이라며 "이번 사랑받는 브랜드 수상을 계기로 끊임없는 개발을 통해 수면 문화를 바꾸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조선비즈 기자

### 고등학생 어학연수부터 성인 MBA 과정까지 제공



이에프에듀케이션퍼스트 코리아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글로벌 교육기업 이에프에듀케이션퍼스트(EF Education First)의 한국 지사다. 1988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3만명의 학생들이 국외에서 새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도록 해 고객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이에프에듀케이션퍼스트 코리아는 서울 강남과 종로, 대구, 부산에서 4개의 지점을 운영한다. 고등학교 학생의 어학연수부터 성인의 경영전문대학원(MBA) 과정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53개국에 지사와 500여개의 지점을 둔 이에프는 어학연수와 유학, 문화체험, 영어캠프 3가지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 세계 성인들의 영어 능력을 측정, 비교 분석한 지표인 이에프 영어능력지수(EF EPI, English

Proficiency Index)를 매년 발표해 왔다.

이에프는 스위스와 중국에 있는 연구개발센터와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국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등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수현 조선비즈 기자

### 한국암웨이, 100여 개국 중 두 번째 큰 시장으로 키워



이사는 한국암웨이를 14년간 이끌어온 전문경영인이다. 박 대표이사는 2002년부터 한국암웨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박 대표이사는 부임 초기 수십억원 수준이었던 한국암웨이 연간 매출을 2014년 약 1조원으로 끌어올렸다. 한국을 암웨이가 자리 잡은 100여 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키워왔다.

그는 2011년 부산 수출 자유무역 지역에 암웨이 아시아 물류허브 센터 건설도 주도했다. 이곳은 미국 본사 에이다(Ada) 물

류센터와 네덜란드 벤로(Venlo)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설립된 물류센터다.

현재 암웨이는 부산 아시아 물류허브 센터를 통해 일본·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박 대표이사는 2011년 전 세계 암웨이 지사 중 처음으로 암웨이 이름을 내건 미술관을 설립했다.

경기도 분당에 세워진 암웨이 미술관은 '문화'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

박 대표이사는 특히 한국 사회와 열성적으로 소통하는 경영자다. 그는 주한미국기업상공회의소(AMCHAM)에서 활동 중이다. 유진우 조선비즈 기자

